

정자나무와 신기료 아저씨

작가 에세이

박연식
광주문협 이사
시인·수필가



역시 입춘이 지나니 햇볕이 살갓을 푸근하게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느낌이 든다. 오늘은 정자나무 아래 신기료 장수 아저씨가 연탄 화덕 모닥불을 피워 놓고 동네 사랑방처럼 훈훈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여름이면 하늘을 떠받쳐 그늘을 만들고 꽃사랑 소년과 소녀비를 피하던 그 나무였다. 청운의 뜻을 품고 도시로 나갔다가 고달픈 타향살이를 하느라 돌부리에 넘어지고 비틀거리면서 터덕터덕 고향으로 돌아오면 언제나 어머니처럼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고 수호신처럼 동네의 안녕을 위하여 모진 비바람도 묵묵히 견뎌온 정자나무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자치단체 마다 경쟁이나 하듯이 동네의 환경 미화를 위한 사업들을 하느라 봉어빵 장수와 고구마 장수 등 서민들과 주머니 가벼운 아버지들이 퇴근길에 들려서 가족들의 간식거리를 사가던 노점상들도 어디론가 쫓겨났는지 행방이 궁금해지고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운 좋게도 우리 동네 정자나무에 터를 잡은 신발수선 아저씨는 컨테이너 박스와 비취 파라솔과 둥근 탁자를 놓고 새로 이사 온 낯선 주민들에게는 생활에 유익한 알짜배기 정보를 건네주거나 소위 뒷새를 부리는 꼬장꼬장한 어른은 나름대로 동네 질서를 잡는 파수꾼 역할도 특출하게 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도시환경 속에서도 그나마 인정의 꽃밭이 가꾸어진 듯 유유자적(悠悠自適) 휴식처로도 위안을 준다.

서둘러 봄 체비를 하는 어른들은 가족들의 낡은 가방과 닳아진 신발까지 모아서 파라솔 밑으로 모여든다. 신기료 장수는 내 발에 맞춤으로 수선해주는 장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덤으로 '찢기고 뜯긴 마음'까지 꿰매고 기워주는 마음 치료사 노릇도 해줬다. 눈썰미도 좋아 손님의 신발 상태로 건강 상담도 해 준다. 유난히 굵이 많은 구두를 요리저리 살펴 보며 기울어진 어깨와 가라앉은 척추의 골다공증을 진단해 주고 신발의 밑바닥과 손바닥의 지문을 대조하여 그가 살아온 내력을 열추 맞추는 즉석 교양강좌도 해 준다.

“내 구두 밑창을 들추어보면서
혹시나 허영과 욕망에 눈이 멀어
몰래 뒷구멍으로 다녔던 그 때를
누구에게 들키고 말았는지
얼굴이 화끈거린다.”

필자는 아예 굵이 빠져버린 겨울부츠를 수선하려고 갔다가 뜻밖에 신기료 아저씨의 연애담도 들을 수 있었다. 당신이 총각시절, 어느 날 연애하던 아가씨랑 데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구두 밑창이 떨어졌단다.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오고 그 후에 어찌 어찌해 삶의 궤도를 이탈했다는 그. 섹스피퍼의 '어린왕자'에서 지구별에 불시착한 비행기 조종사처럼 그는 삶의 비밀들을 나에게 하나씩 풀어줬다.

살기 좋은 환경은 어떤 것일까. 애면글면 감내하면서 간직하고 비켜낸 옛 것들을 쓸모없는 구닥다리로 취급하고 허부리영감의 떼어내지 못하는 욕심덩어리로 치부한다거나 하는, 사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연결고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싹둑 무를 자르듯 하는 신세대의 문화가 당혹스럽고 불편하기 짝이 없기도 하다. 오늘도 동네 입구에 너무 자주 주인이 바뀌는 식당의 간판엔 알 수 없는 단어의 현란한 신조어를 맞닥뜨리면서 어리둥절할 뿐이다

어제 말긴 수선한 구두를 찾아서 정자나무를 지나오는데 불현 듯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오는 하여 자꾸 뒤를 돌아보고 둘러보았다. 어쩐지 생시처럼 어머니는 정자나무 아래 신기료 아저씨 곁에서 오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서로의 일생에서 나무의 나이테처럼 늘어나는 애잔하고 아련한 그 무엇들을 어루만져주는 듯 했다. 탄탄대로가 아니어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구멍 난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 꿰매주는 신기료 아저씨는 수선이 절대 안 되는 곳을 용케도 고쳐주는 마법사이기도 하다. 온고지신처럼 옛것을 살려내어 반짝이는 새것으로 재생시키는 신기료장수. 우리 동네 100년도 넘었다는 정자나무 아래 무지개 파라솔이 색이 뿌연 먼지를 뒤집어쓰고 이젠 동네노인들에게 흑백영화의 다큐멘타리를 들려주고 있다.

신발의 뒤꿈치만 보아도 주인의 걸어온 인생의 뒷모습과 비밀스러운 사연을 알 수 있겠다는 때로는 아마추어 철학자 같은 논리를 설파하기도 하지만 내 구두 밑창을 들추어보면서 혹시나 허영과 욕망에 눈이 멀어 몰래 뒷구멍으로 다녔던 그 때를 누구에게 들키고 말았는지 얼굴이 화끈거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자나무 아래 어머니의 얼룩진 행주치마처럼 찌들어가는 신기료 아저씨의 파라솔 아래 부끄럼도 없이 맨발로 오래 오래 서 있고 싶어진다.



기고 임채석 광주교육청사무관·행정학박사

‘갑’과 ‘을’의易地思之

요즘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진단하는 말 중 하나는 ‘갑질’이다. 하지만 이제는 갑질 뿐 아니라 ‘을질’, ‘병질’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기업 오너 비행기 회향이 갑질이라면, 백화점에서 점원에게 진상 짓을 하고 사과하라고 욕박지르면 을질이다. 갑질, 을질, 병질은 일반 직장이나 공직사회 할 것 없이 우리 주변 일상 속까지 번져가는 양상이다. 일부에서는 ‘갑질’보다 ‘을질’이 더 심각하다는 말도 나온다.

갑의 잘못된 행위를 ‘갑질’이라고 한다. 갑을관계는 계약관계에서 유래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지 상대적 우월적 지위의 ‘갑’이 ‘을’에 자의적 권력행사를 비난하는 신조어가 됐다. ‘갑질’은 당해 본 ‘을’만이 아니다. 그런데 갑의 갑질보다는 갑질을 당한 을이 자신보다 약한 병에게 을질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병은 또 자신보다 약한 정에게 갑질 또는 을질과 다를 바 없는 병질을 한다.

갑질문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갑질피해에 노출되는 사람들일수록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갑질한 경험이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갑질 피해자들이 부당한 갑질에 굴복하고 순응하게 될 경우 결국 손상된 자존감을 보상받기 위해 자신보다 취약한 또 다른 ‘을’에게 되갚아주려는 심리가 작용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갑질이 또 다른 갑질을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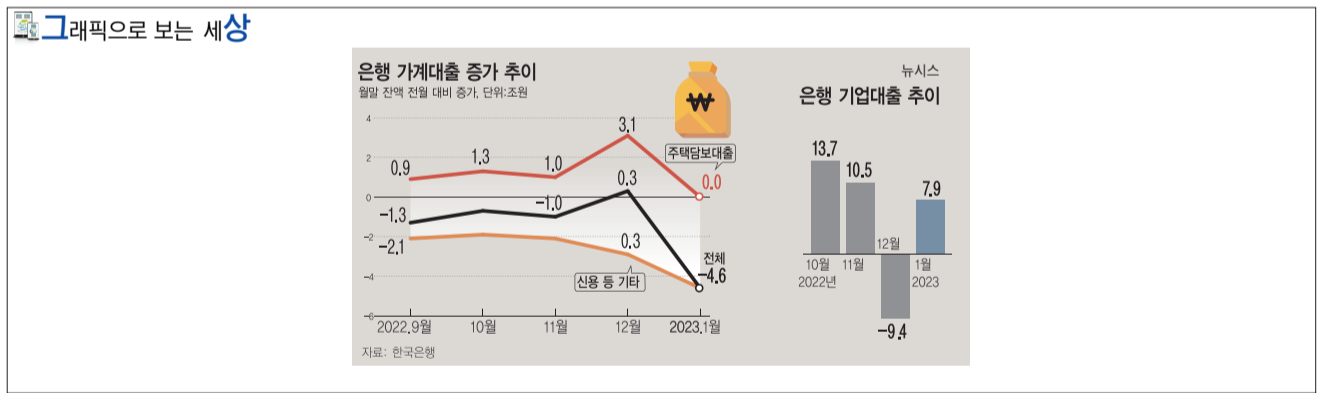
몇 해 전 기성세대들에게 권하는 책 ‘90년생이 온다’를 읽어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얼마 지나 ‘70년대생이 온다’가 발간되었다. 90년생이 오면서 70년생이 울고 직장에서 ‘꼰대’가 아닌 리더가 되는 길을 제시한다고 책은 설명하고 있다. 2030 신

세대는 다른 사람이 조금 불편해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세대, 70년대생은 가만히 있어도 꼰대로 몰리는 억울한 세대라고 불만을 토로한다. 분명 세대 간 갈등이 아닌 차이는 존재한다.

보통 갑질은 상호 균형이 깨졌을 때 발생한다. 학교와 조직 내에는 다양한 세대가 공존하고 있다. 세대 간 원활한 업무추진 성과를 위해서는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수평적 상호존중 조직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MZ세대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직장인은 누구나 수평적이고 인간 존중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상사와 일하고 싶어 한다. 그런 환경에서는 동기가 잘 부여되고 업무 성과도 높아진다.

교직 현장에도 갑질은 존재한다. 이우가 무엇이든 건강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갑질은 근절되어야 한다. 상호존중 문화조성은 외부로부터가 아닌 내부 스스로의 성찰과 인식에서 시작된다. 본인의 입장에서 수긍하기 어려우면 모든 것을 갑질로 치부하는 것도 지양되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입장과 상황이 바뀌면 갑이 을이 되고 을이 갑이 되기도 한다. 누구도 영원한 갑이거나 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역지사지(易地思之)는 당사자들 간에서 서로의 처지,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준다는 의미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함으로써 갈등을 줄일 수 있다면 이러한 역지사지의 태도는 공감 능력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갑일까? 을일까? 한번 역지사지해 볼 일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8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

HAPPY MEMORIES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 전 편 천연가죽 리클라이너 소파석 (K/불식보유)
▶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스톤다마켓 총창로점 062-222-7733

롯데시네마 총창로관

1관	교섭/유령
2관	바빌론/교섭
3관	아바타:물의 길
4관	상견니/돌핀보이
5관	유령
6관	영웅/메간
7관	바빌론/유령
8관	영웅/메간
9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유령

광주광역시 동구 총창로안길 12

여프기니스틴, 폭숨을 구하기 위해 폭숨을 걸다

교섭

2023. 01. 18

당신의 사랑, 내 인생의 전부

유령

2023. 01. 18

전용 주차장
<주간&야간> **신동아 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첫영화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

제휴 주차장
<주간&야간> **동아주차장, 파레스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오전 09:00 - 마지막 영화까지 !!

<주간> **황금주차장 3시간 무료**
- 운영시간: 오전09:00-오후 20:30까지

※ 3시간 무료 주차이유,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드림플러스파크는 이용시 1시간 30분 무료주차 기증(연말, 휴일, 대관 행사에 한함)

보약, 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복교당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예금주 박주환)

무릎 관리 / 활기찬 삶! 산수유두충 60포 ▶▶▶ 12만원

미세먼지(기관지 보호) 예방식품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5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 062)369-9227